

NPC, 에틸렌 400만톤 확장투자

Olefins 7은 Sabic과 합작투자 협상 ... Olefins 11-13도 적극추진

Saudi Basic Industries(Sabic)가 이란의 National Petrochemical과 NPC의 자회사 Marun Petrochemical의 지분 50% 인수를 놓고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 있다.

Marun은 이란 Bandar Imam에 NPC의 Olefins 7 플랜트를 건설 중인데 에틸렌(Ethylene) 110만톤 콤플렉스이다. Olefins 7은 2004년 말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PE(Polyethylene)와 기타 유도제품 플랜트는 6개월 후 가동할 방침이다.

Sabic과 NPC의 합작으로 중동 석유화학 생산기업의 협력관계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양사의 합작으로 사우디와 이란 플랜트간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NPC는 Sabic에 BTX(Aromatic)와 에탄(Ethane)을 공급하는 것도 기대하고 있다.

NPC는 최근 발표한 Olefins 13 플랜트 건설계획의 합작 파트너도 물색중이다. Olefins 13 플랜트는 이란의 Bandar Assaluyeh에 건설되며 에틸렌 생산능력이 110만-120만톤에 달한다.

Atofina와 Indian Oil(IOC)도 중동지역 대규모 플랜트 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NPC와의 합작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광범위한 석유화학 생산능력 증설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중이며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해 경쟁력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란은 중동지역 천연가스 매장량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산지인 South Pars의 지분도 보유해 Bandar Assaluyeh에 대한 신규 석유화학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란은 Bandar Assaluyeh 석유화학 개발사업으로 한해 1000만톤의 천연가스를 생산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1500km의 에틸렌 파이프를 Bandar Assaluyeh와 Bandar Imam을 연결해 이란 서부에 5개의 유도제품 플랜트를 건설할 예정이다.

파이프라인이 완공되면 한해 150만톤의 에틸렌을 운반하게 되는데 현재 20%의 공사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NPC는 합작 파트너를 찾지 못하면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이며, 최근 Shell Chemical이 철수한 Bandar Imam의 Olefins 8 프로젝트도 계속 진행해 자회사인 Arcand Petrochemical이 운영하게 할 방침이다.

Bandar Assaluyeh에 건설될 예정인 NPC의 Olefins 12 프로젝트 수주에는 Technip이 참여하고 있다.

Olefins 12 콤플렉스는 에틸렌 생산능력이 190만톤으로 완공되면 이란의 2번째 Liquid Cracker가 된다. NPC는 Olefins 12 플랜트와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핵심사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NPC의 다른 Liquid Cracker는 Amir Kabir가 운영하고 있는 에틸렌 52만톤 Olefins 6 플랜트로 2004년 5월 가동을 시작했으며 2004년 9월에는 풀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Olefins 9으로 알려진 Arya Sasol의 Bandar Assaluyeh 소재 플랜트는 100만톤의 에틸렌 생산능력을 갖추고 2005년 초 가동될 전망이다. Arya Sasol은 NPC와 Sasol의 합작기업이다.

Jam Petrochemical의 Olefins 10 프로젝트의 에틸렌 130만톤 크래커도 2005년 가동할 예정이다.

NPC의 No.3 메탄올(Methanol) 100만톤 플랜트도 Bandar Imam에서 가동에 들어가 Fanavarani이 운영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8/09>